

韓國 農業土木의 海外用役進出에 있어 어제와 오늘

ADB 林殷鎮氏를 모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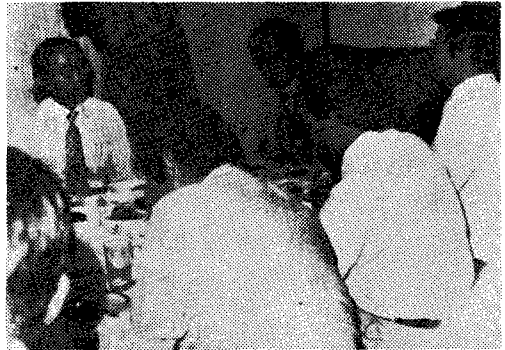
參 席 者

招 請 者

ADB 林 殷 鎮
學 界 高 在 君
農 振 公 咸 俊 鎬
業 界 林 炳 九

會 長 團

會 長 林 迎 春
副 會 長 金 始 源
" 李 基 春
" 鄭 鎮 鎬
專任理事 嚴 泰 營



座談光景

學會長 :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농공학회 주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농공계에 20년 가까이 우리와 같이 농공학회회원으로서 ADC의 중요한 일을 하시다 약 10년 전에 아시아 개발은행에 가신 임은진선생을 모셨습니다. 임은진선생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전문가들과 같이 일을 해왔고, 또 여러 중진국의 우수한 간부 기술자들과도 많은 접촉을 가짐으로서 귀중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인사를 모시고 우리 학회 회장단과 정책분과위원장인 고재군박사 함준호이사, 건설 및 용역업계의 신진으로 활약하시는 표준콘크리트 회사의 대표 임병구씨를 모시고 좌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좌담회를 통해 임은진선생의 좋은 말씀을 듣고 우리자신들도 이기회에 우리가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회고하면서 임선생께서 우리가 시원찮게 한일은 힐책해주시고 또 잘된일은 칭찬해주시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학회가 잘되고, 기술발전이 이루어지고, 학문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국내외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가 하는점에 중점을 두어 느끼고 생각하시는대로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고, 또 함께 자리뜰한 국내에 계신 분들에게서도 기탄없는 질문을 하여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좌담결과를 회지에 게재하여 우리 학회원들이 "아! 좋은 간

담회를 가졌구나"하는 평을 듣게 되리라고 확신하는바 올시다. 우선 이런정도로 간담회의 취지말씀을 드리고 먼저 임선생이 말씀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林先生 :제가 고국을 떠난 지가 한달이 있으면 10년이 됩니다. 10년 전에 제가 몸담아 있던 농공학회를 위주로한 농업진흥공사에 있을때 저를 항상 주위에서 도와주신 여러선배,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특히 제가 존경하는 학회장님께서 불초 이 사람을 위하여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감개가 무량하며 딱 흐뭇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실은 옛그제 제가 농진공을 방문했을 때 학회장께서 「국제공로상」이라고 하는 분에 넘치는 상패까지 주셔서 저로서는 부끄럽게 생각하는 한편, 그 반면에 농공학회 발전을 위하여 뭔가 도움이 될만한 말씀이라도 드리는 것이 학회에 대한 보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조직적으로 순서있게 준비된 내용도 별로 없고, 따라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속에서 10년 동안 고국을 떠나서 ADB에 가 있으면서 은행내에서 생각하고 느낀 것, 그리고 은행의 업무를 위주로 해서 제가 ADB회원국을 다니면서 느낀점 등을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릴까 하며, 여러분께서 무슨 질문이 있으시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이켜 건네, 제가 ADB로 갈 당시의 경력이란 학교를 나와서, 염전계통에 1년, 군대생활 약 2년 그후로 쭉 농업진흥공사에서 17년 있었습니다. 현재 여기 계시는 학회장님과는 우연히도 직장에서 직접 상사로서 쭉 모시게 되었습니다. 학회장님의 지도 편달과 후원으로 국내에서 제가 일하는 동안 대과없이 지냈으며,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처음으로 금강·평택 사업을 세계은행의 차관을 도입 시행케 됨에 제가 처음으로 외국사업에 관여를 하다가 떠나기 직전에는 특정사업부(금강·평택사업)라는 것이 조직이 되어서 제각 초대 부장을 역임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겨우 얻은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 아시아 개발은행에 가서 한번 일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 실력을 가지고서는 특히 영어 어학방면에 좀 대담한 용기를 내지 않았던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임학회장님의 간곡한 격려와 ADB에 채용될 수 있고 가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보라는 권고에 힘입어 저도 용기를 내서 해 보았던 것입니다. 결국 성공은 했지만, 만용을 냈던 것 같아요. ADB에 가게된데 대하여 그 당시 농공학회장이시던 李相賢 선생의 힘이 컸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서 제가 가서 제일처음 느꼈던 것은 기술실력보다 그에 앞서서 제가 고배를 처음 마셨던 것은 역시 어학이었습니다. 대부분 여기에 계신 분들은 외국여행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외국사람들 특히 서양사람들의 성격을 잘 아시리라고 믿지만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생활환경이라던가 풍습, 사회생활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 동양사람보다도 훨씬 진취적이고, 앞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에 비하면 실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발표력이라든가 또는 풍습 습관 때문에 알면서도 여러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할 기회가 없이 자랐던 관계로 해서 항상 그러한 점에서 조금 뒤떨어진다는 충고도 받았고, 대개 한국, 일본, 또는 중국사람들은 초창기에 있어서는 뒤지는 감이 없지않아 있었던 것인데 그러나 시일을 두고 장기전에 들어가서는 제자신 느낀 것이 그러한 어학, 풍습, 습관, 면에서 서양사람들과 비교해서 헛더켤상으로 뒤떨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한가지 우리가 내세울수 있다는 것은 인내, 근면 그리고 남달리 부지런하게 뛰고, 공부하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서양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2배, 3배 때로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하지않으면 안되었지요.

예를 들어서 보고서를 쓰는 점에 있어서도 때로는 보따리를 집에 가지고 가서 쓰지않으면 도저히 그사람들을 따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자면은 시작 1년·2년까지는 모든 정성을 다하여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역시 위치 또는 은행의 성격으로 봐서 동양사람들이 아직도 많기때문에 우리 동양사람들이 진출하기에는 세계은행에 비해서 조금 쉽지만은가 생각되며, 요사이는 아세아개발은행에서 3~4년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세계은행에서 스카우트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ADB에 가게 된 동기와 가서의 눈물겨운 고생과 국제일에 순응되기 까지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 말씀드렸고, 다음에는 우리나라의 농공분야와 동남아시아의 농공분야의 비교입니다. 제가 ADB에 가 있으면서도 10년동안 맡고 있는 분야가 제가 여기서 하던 일을 그대로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공부할 하면서도 그 계통에 신경을 쓰며 또 우리나라와의 비교를 언제나 하게 되었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서 그동안 변천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ADB에 발을 들여 놓으면서 첫째로 느낀 것이 우리나라의 농공기술이 역시 동남아에서는 확실히 앞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으나 일반 수리사업 분야의 조직 및 기구라든가 또는 운영면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순수한 기술면을 두고, 국제적인 수준상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그사람들보다 우리가 월등히 앞서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농공분야에서 선진국의 시찰케이스로 南榮熙 전학회장이 처음 미국에 가신 것으로 알며, 그후로 지금 여기 계시는 학회장님께서 기술훈련케이스로는 처음으로 미국에 가셨고, 제가 그다음으로 지금 농수산부의 오완수국장 및 최현국과장등과 같이 미국에서 기술훈련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56년에 가서 57년에 돌아온 셈이죠. 우리가 그때 갔다와서 제일먼저 착수하게 된것이 시험소설치였지요. 그때 학회장께서 비상한 노력을 하시여 시험소를 설치하셨고, 시험소를 주관하는 기획과장이 되셨으며 그회하에 제가 초대 시험계장이라는 직분을 맡아사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시험계통은 백지상태여서 여러가지 불리한 어려움과 새분야를 개척하기에 애로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오늘날의 농업진흥공사의 시험소로 발전하게 된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임병구사장께서 표준콘크리트를 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으로 떠오르는 것은 시험소 창설 당시 생각이 나는군요. 동남아세아계통에서 태국이라던가 인도네시아 등은 아주 엄청난 기관이며 현업기관에서도 시험소를 갖추고 있는 기관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소를 갖추고서 현업을 운영하였다 하는 점은 남달리 또 한번 자랑할 수 있었던 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다음 조직면에 있어서는 학회장께서 여러번 용역관계로 해외여행을 하셔서 잘 아시리라 믿지만, 제가 알기로는 동남아시아 여러나라 예를 들어 볼 때 필리핀의 National Irrigation Administration이라는 기관은 농업진흥공사와 거의 비슷하게 100% 관도 아니고, 건설부장관 산하에 있으면서 국영기업체 비슷하게 그러나 그사람들의 신분은 완전히 공무원으로 되어있죠. 사단법인 격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R.I.D는 농림성의 국이죠, 국중에서 가장 큰 국이고, 또 말레이시아에는 D.I.D가 있는데 건설성의 국이고 파키스탄에는 Water and Power Development Authority라는 것이 있는데, 이기관은 우리 ADC와 비슷하고 인도는 수자원청이 있지요. 한가지 조직면에서 우리나라가 한번 꼭 생각할 것은, 우리 농공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학회를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이 학회가 주동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외국 예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겠지요. 또한 여러분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공분야 기관의 장은 예외없이 전부 기술자가 장을 합니다. 행정체통의 사람이 기관의 장을 했던 역사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출장을 갈때마다 Agency의 사람들과 연혁을 따지는데 거의가 수리관계 조직은 물론 이에 관한 모든 기관의 장은 반드시 기술자가 장이 되고있고 필리핀의 수리청은 기술자 청장 밑에 소위 부청장을 Assistant Administrator라고 칭하는데, Assistant Administrator 4사람중에 3사람은 기술자이고, 단 한사람이 경리, 인사, 서무 체통의 Assistant Administrator입니다.

태국에 가면 제일 높은 사람이 Director General 즉 수리국장이죠, 이수리국장은 물론 기술자이고 부국장 4인중 한사람만이 행정체통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는 비교적 영국계통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교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선진되어 있는 나

라인데, 역시 D.G가 제일 높은 사람으로서, 기술자고 거기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4사람 Deputer D.G (부국장)의 4사람 모두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사업소장은 우리나라 농업진흥공사의 도지사장에 해당하는데, 사무계통 사람이 들으면 섭섭할런지 모르지만, Legional Director Office 소위 지역사무소 또는 지사지요. 이 기관의 장은 모두 기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사무가가 기술기관의 장을 한다는 것은 생각해 본일도 없답니다. 도대체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한국식으로 기관의 장이라는 것은 역시 Non Technical Deople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기술자들은 생각하는 방향이 어디까지나 기술분야여서 범위가 좁다는등 반박도 나오겠지만, 그사람들의 생각은 기술분야에 있어서 기술행정이라는 것은 누가 하여야 하느냐, 역시 기술자가 해야 한다.

그사람들은 공무원에 대한 신분보장이 확실히 되어 있어서 형사적인 범죄가 없는한 그사람들의 신분은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농공분야의 자량이 될 만한 사실은 그동안 우리 국력이 무섭게 발전되어서 동남아시아, 사우디아라비아등 중동에서 건설업체의 진출이 눈부실정도로 활약하고 있는데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건설업체의 진출은 아주 최근 5~6년 내에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진출이 되었다는 점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기에는 고급 두뇌수출인 기술, 용역계통은 우리나라가 지금 국제적으로 특히 IBRD나 ADB 계통사업의 기술 용역에 진출한 것은 농공분야외에는 거의 없지 않느냐, 어디 임사장 어떻습니까? Consultant관계로 혹은 건설업체가 진출할 때 부수적으로 용역이 같이 따라서 하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나 별도로 용역단이 독립된 위치에서 국제선진기술진출 하고 경합을 해가지고 용역을 획득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 일 것입니다. 임사장, 토목계통에서는 건설업에 편승 기술용역이 진출된 데가 있나요?

林社長: 건설시장의 호경기의 봄을 타고 상당히 많은 건설 진출을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지금 임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고급지식을 팔아먹는 Consulting Engineering의 수출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움직였다 하는 것으로는 전 엔지니어링이 중동에 진출한 것으로 아는데 그것도 Plant계열입니다. 그리고 대림에서 Civil Engineering관계도 조금 손을 댔으며 대림역시도 주로 Plant관계를 손을 조금대고 있는데 Consulting Engineering 그 자체로써 수출은 거의

황무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林先生: 저도 지금 당황하게 그런 정도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던 것인데, 우리 농공분야에서 지금 한가지 크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것은 우리 농업진흥공사가 위주가 돼서 Consulting Service하는 점입니다. ADB에서 주관하는 Technical Assistance 자금이 나갈때는 사업차관을 유한 타당성 조사 결과에 의하여 평가를 해서 자금이 나가는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요, 아직도 ADB회원국의 90% 이상의 나라들이 타당성조사는 대부분 외국 Consultant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ADB의 기술원조 자금이 차지하고 있는 분야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원조 자기에 의한 타당성조사를 할때는 경쟁 입찰 하게 되는 거죠. 경쟁 입찰과정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ADB에 등록되어 있는 Consulting Firm이 1,500개가 됩니다. 국제적으로 유명하다고 하는 회사들은 거의 다 등록이 되어있죠. 그중에서 농공분야만을 따로 따지자면 200~250개 정도로 그중에 농진이 하나 들어있죠. 농업토목 분야의 타당성 조사사업이 하나 나왔을 때는 250개 List를 가지고 우선 서류전형을 하게 됩니다. 약 10% 정도로 그수를 줄여 Semi long list를 만듭니다.

기회균등 원칙으로 20여개를 뽑으면 그다음 20여개 회사 중에서 Semi-final-list를 또 만듭니다. 10여개가 Semi-final-list에 남게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관례로 하는 것은 다섯개 내지 여섯개 회사를 final-list로 정하게 되는 거죠. 농업진흥공사가 그과정을 거쳐 final-list에 오르 적이 몇번 있었습니다. 그만큼 알려졌다는 얘기가 되고 문제는 그후에 있습니다.

그러면 final-list에 오른 회사가 invitation 대상이 되는 거죠. 거기서 Technical Proposal를 영어로 그럴싸하게 은행구미에 맞게, 써내야 합니다. 농업진흥공사가 몇번 그것을 해냈습니다. 국제적인 경합이 붙는건데 거기에서 합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볼 때 큰 자랑이며, 국위를 빛내는 것 입니다.

월남의 수리사업 지구 타당성 조사를 농진이 승리하여 ADB와 용역 계약을 처음 맺은 것은 1972년도로 지금 학회장께서 비상한 노력을 하여 성공시킨 것 입니다. 나도 그때 좀 거들었습니다만 내가 그때 들기로는 국내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진국 기술단체인 ADC가 선진국들의 우수한 용역단들을 누르고, 국제금융기관에서 기술용역을 따나는 것은 상

상도 못하였으므로 그 지구가 월남인 까닭에 우리가 월남에서 피흘린 덕이지 실력으로 판것이 아니라고들 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 기술원조로 은행이 용역단을 고용하는 것으로 월남의 의견을 가볍게 참고로할 정도지 100% 은행이 결정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장한 일을 이미 1972년도에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 학회가 중심이 되어서 현업단체라던가 또는 정부관계 요로에 이 사업의 계속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더 내야 한다고 보며, 특히 우리 학회장께서는 이 방면에 많은 경험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학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좋은 의견을 모아 현재 수준에서 보다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제경쟁 즉 기술용역 경쟁이란 쉬운것은 아니고, 아무나 한다하는 생각을 하면 위험한 일입니다. '국가배경을 가지고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것은 좀더 생각해볼 일일것요. 기술면 또는 그밖에 용역을 다루는것 테크닉 등은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그 자리에 있으면 할 수 있지않느냐는 안이한 생각은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쟁은 점점 더 심해지고 또 용역을 하다보면, 사실 농진공을 가만히 보면, 여러군데 여러사업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우리학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그 방면의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 혹시 제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될런지도 모르지만, 지금 여러분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아의 이름있는 용역회사들이 요새 상당히 고배를 마시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 태국, 제가 갈때마다 그 정부 고위관리들한테 얘기를 듣고 있는데, 최근에도 필리핀 수리청장한테 항의를 받은 것은 도대체 영어를 못해서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다는 거지요. 소위 Consultant라고 와서 영어도 할줄 모르는 사람들을 보내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회사가 국제적으로 고배를 마시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나라의 국력이 모자라서도 아니고, member들의 기술실력이야 딸릴게 없겠요? 어학과 국제센스등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말았을 때에는 그일에 맞게 망신을 당하지 않고 그래도 Consultant하던 우리를 가르쳐 주러 온 사람이다. 도와주러 온 사람이다. 모튼면에서 외국용역단원 답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발표가 없다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용역을 맡을 때는 능력이 미치는 것을 맡아야지 기술없이 했다간 망신 당하기 쉬우니까 명실공히 내용도 충실히 해가면서 일을 맡으시도록 제가 학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농공학회회원의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용역 맡아야 된다. 좋조, 실력없이 뒷받침도 없이 특히 Team leader의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평정을 할때 Team leader가 90% 차지합니다. 팀리더를 선정하실때 아주 국제적으로 정부사람들..., 여러분들도 대개 잘 아시겠지만, 용역을 주는 전체로 보면 수준이 낮고, 우리보다 수준이 낮다 하더라도 요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외국에서 공부하고, 어학실력이라든가, 생각하는 방향이라든가 아주 우수한 사람들이죠. 그사람들 하고 대개 팀리더가 대하는데 저사람들한테 깔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은 도저히 용역출진이 안됩니다. 우선 말은것은 O.K., 이것으로 끝내자 no more 이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아직 저력은 있으니까, 어학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겠고, 계속 저력을 살려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점점더 심해가는 국제경쟁에 뒤떨어지지나 않을까, 여태까지 기반이 조성돼 가지고 잘 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유지하고 앞으로더 발전을 시키자면 그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學會長 : 임선생이 귀중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우리 농공 계통의 조직문제 동남아 제국에 있어서의 조직문제의 비교 특히 우리가 장래에 큰 관심 거리로 중요시 해야 될 해외 용역문제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계속 이 문제 이외에도 의견 교환하고 또 우리 국내에 계신분도 의견을 말씀 하시는 동시에 임선생에게 문의 하고 싶은 것을 질문 하십시오.

다음은 이기춘 박사에게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李副會長 : 우리 농공 분야를 위해서 임은진씨를 음으로 양으로 크나큰 도움이 되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겸손한 분위기 때문에 지금 까지 한국을 위해서 또는 농공 분야를 위해서 전력 해온 내용은 하나도 소개 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좀 전에 final-list까지 올라 온다 하는 얘기를 단지 사무적인 절차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요 그중에서 농진공이 때때로 List에 오르게 되어서 기쁘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듣고서 생각

할때 final-list 까지 오르는 과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 어려운 과정을 농진공의 서류 전형에서 통과를 해서 오른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지.

그런데 그것이 내용면에서 단지 그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순전히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인지 아니면 농진 또는 국가 자체에서 action을 취하는 내용이 있는 것인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선생의 노력에 의하여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금 궁금하오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學會長 : 이제 이기춘 박사께서 말씀 하셨는데 한분 한분 질문서 응답하는 것보다 좌담회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모인분들 한분 한분 질문 하고픈 문제 또는 임선생이 touch할 문제 이외에 차체에 한번 우리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발전 하는데 고려할 사항을 계속 말씀해주시고 그것에 따라 임선생의 Comment와 답변을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봅시다.

이다음 차례는 앉은 순서로 김부회장께로 돌리겠습니다.

金副會長 : 오늘 오랫동안 임은진 선배님을 뵈게 되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만나게 되면 기술자 선배님중에서 가장 멋쟁이시며 기술적으로도 훌륭한 분이라고 저희들이 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학회장님께서 학회를 맡으신 이후로 2년 째로 돌입하고 있습니다만 학회 운영방침이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공의 학술 문제든지 제반 문제를 심오하게 다루실려고 애쓸 뿐만 아니라 국외의 정보를 담아서 학회나 실무를 위해서 어쨌던지 농공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말씀을 하실때 저희들은 의욕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뵈오니 몇가지 말씀을 여쭙 보고자 합니다.

첫번째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농업진흥공사가 역사적인 변천으로 토지개발조합연합회, 여러가지 기구 이름이 바뀌면서 여러모로 발전되어 가고 있는데 외국에 가서 보신 입장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운영 방침이라든지...

이런것이 마음 든든한 방향의 기구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할수 있는 건지 그것을 한번 여쭙 보고 싶어요?

두번째로 여쭙어 보고 싶은 것은 아시아 개발은행에 계시다 보면, 농업진흥공사 뿐만 아니라 '80년대 농정을 전개하는 입장에서, 우리 국내에 있어서의 농공의 방향을 농정의 입장에서 어떻게 다루어졌으면 좋을런지 말씀을 듣고 싶고.

세번째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공 교육의 방향을 세계 입장에서 보실적에 농공 교육의 방향을 어디다 촛점을 두고서 어떻게 이끌어 가야 세계 무대 속에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우리 농공 교육을 할수 있으며 혹은 Sandwich system 소위 상하 협동 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학교와 실무기관과의 연결 관계를 어떻게 가져 줬으면 좋을런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제가 여쭙어 보고자 하는 골자입니다.

學會長: 다음 고박사께 부탁 합니다.

高博士: 임선생께서는 이달 한달이면 10년간 해외에서 근무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우선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시고 참! 마음 든든하게 생각 하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학회에서 정책연구분과위원회를 말씀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기술도 중요 하지만 이 기술을 발전 시키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고 Flame이 될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한다면 이것은 조적이라던가, 또는 여러가지 제도가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 회장님께서 특별히 정책연구분과위원회를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그런 제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셔서 부탁드리고자 하는것은 지금은 여러가지 기술도 중요하지만 역시 기술을 운영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며 우리로서는 과연 어떻게 해서 앞을 내다보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할 것인가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Information을 주심사 하는 부탁이고 특히 지금 당면 문제는 앞으로 새로운 기술이 발전 하려고 한다면 시험 및 연구사업이 사실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는 시험소가 있습니다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국립기관으로서 농촌진흥청에 농공연구소에 토목과라는 것이 있었는데 기구가 농업기계화 연구소로 개편이 됨에 따라 토목과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학회에서는 이것을 계기로 하여 앞으로 농업토목 시험장이라든가, 농촌건설 연구소라든가... 하는 보다 큰 독립된 연구기관으로 발전시켜 보자, 창설해 보자, 하는 움직임도 있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기관이 국립이 되던, 아니면 사단법인인 되던 간에 좀더 앞을 내다보고 또 심오한 연구를 뒷받침 기관의 설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한 해외정보라든가 그밖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 질문은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보신테로 느끼신테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즉, 아시아 여러나라를 순방하셨을 때 농촌생활환경이나 농촌시설 등의 수준을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농촌개발이나 농촌의 종합적계획이 어떤 부서에서 관장되고 어느정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나라 농촌생활환경의 개선이나 농촌건설을 합리적으로 하기 위한 농촌개발계획 방향과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방법에 대해서도 부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威理事: 오늘 사실은 학회장님께서 강연회를 갖고저 하였으나 사정에 의해 좌담회 형식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좌담하고 있습니다만 딱딱한 질문 좀 해야 되겠어요. 우리 임선생께서 「국제공로상」을 학회장으로 부터 수여받으신 것을 학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축하드립니다.

임선생께서는 여러사람이 아시다시피 국내에서 활동한 바가 크며 특히 조사설계를 완전히 Master 하고 그 다음에는 역시 그 조사설계의 뒷받침이 되는 현 기술의 선구자가 되어서 학회장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셨고, 그 후에 한국 전체수자원개발을 Study하신 다음에는 대단위종합농업개발사업의 국제적인 사업화에 대한 창조자이시고 또 거기에 대해 대과없이 완성을 해서 오늘 이 사업이 성공되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국내에서 닭은 실력을 기초로 하여 해외의 10개년간 활동을 하시다 오늘 귀국하시게 되었습니다. 해외기술의 용역업무에 있어 농진공의 해외사업진출에 있어 국내에서는 우리 학회장이 개발을 해 주셨고, 외국에서는 특히 ADB의 임선생께서 지도해 주신 결과가 오늘의 농진공의 해외개발에 Moment가 됐고, 현재까지 또 그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유치원 학생인데, 그것이 임선생께서 외국에 계시면서 직접 간접으로 지도해 주시기 때문에 중학생 정도로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놓고 임선생께 정식으로 3가지만 질문고져 합니다.

첫째 국제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한국 농지기반조성사업의 방향을 좀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음

니다. 좀 자세히 말씀들이면 우리 농지개발 사업이 과연 앞으로 식량증산에만 목표를 둘 것인가 더 나아가서 20년 후의 2000년대를 향해서 우리 농촌근대화화를 위해 무엇인가 더 뛰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러한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우리 한국이 처해져 있는 입장에서 불적에는 국내적인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농지기반조성사업을 할 것인가 또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우리 농지기반조성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나가야 우리 한국이 앞으로 국제적 무대에서 고립화 되지 않고,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농지기반 조성사업의 나갈 길을 가르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가 국내에서도 ADB차관 사업으로 해서 많은 다목적 농업개발사업, 우리가 간접, 직접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기술용역 사업도 하고 있는데, 다목적 농업개발 사업의 협조·조정체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아까 고박사께서도 지역개발 사업, 이런 문제도 나왔는데 여러가지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한국의 실정으로 볼때는 농업기반 조성사업은 농진공이 하고 기타 농사지도는 진흥청, 농업기계는 농협에서 하고 또 지역개발사업은 뭐 어디서 하고, 하천개수는 건설부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사업도 그렇고 ADB 사람들이 와서 그럴때도 결과적으로 협조를 각 기관이 잘 해 가는 것으로 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본사업 하나만 되어 버리고 결국 다목적 농업개발사업이 농지개발사업 하나로 끝나는 결과가 되는 데가 왕왕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농업진흥공사가 주체가 되어 가지고 월남을 70년대에 주로 해 가지고 부진하지만 현재까지 한 10년 동안 국제용역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용역개발을 해 나가는 체제가 이것이 최선의 길인가 우리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읍니다. 이것이 과연 국제적인 입장에서 다른나라와 비교해 볼 때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이 방법만으로 하면 절대적으로 좋은 방법이 될는지 우리가 농진공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그런식으로 하고 있지요. 국제건설 업무는 중동을 비롯하여 많이 진출되어 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이 Plant 수출이었으나 차차 두의 수출의 방향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앞으로 해외기술 용역에 많이 진출해야 되고 국위양상을 위해서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의 체제가 과연 현재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좋은 방법인지, 여러가지 예를 들어볼때, 국가가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농업진흥공사

같이 공공기관이 하는데도 있을 것이고 또는 개인 용역단이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공공기관과 개인용역단이 섞인 그러한 형태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다른나라가 발전되어 나가고, 용역단을 운영해 나가고 또 진출해 나가는데 있어서 좋은 장단점을 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길이 좋다면 지금부터 그 길을 향해 준비를 해 가지고 장차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의 단점은 시정하여 국제용역 진출을 위한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국내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좀 가르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국제적으로 진출하려면 우리 기술자들이 요원을 양성하여야 되겠어요. 지금 형편으로 볼때 물론 현재까지는 잘해 나왔읍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견지에서 아까 임선생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한국사람이 어학도 부족해, Report 쓰는 방법도 부족하고, 또 하나 국제관계에서도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용역업무란, Business인데도 10년전, 15년전 기술을 팔아 먹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은 벌써 저 개발국가라고 하지만은 저개발국가이 아닌 선진국의 기술을 직수입해 가지고 여러가지 기관 원조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한국만이 유독 10년전, 15년전 기술을 그대로 팔아먹고 있어요. 이러한 점에서 각자의 전문지식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에 있어서 지금은 농진공이 어떻게 진출하느냐 하면 과거에 갔던 사람, 어학에 능하고, 잘하든지, 못하든지 어떤때는 못한 사람도 끼고 잘하는 사람을 주로 해서 내보내고 있는데 이러한 면에 있어서 결국 각 기술자를 가지고 지금부터도 무엇인가 세계적으로 양성을 해나가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임선생께서 Team leader가 용역단선정에 있어 중요한 Selection Factor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이러한 Team leader의 양성이라는 것도 해외 육역 기술의 준비작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기구와 조직등을 어떻게 앞으로 개선해 나가면서 근본운영 문제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진흥공사는 농업진흥공사체로 어떤 용역 회사면 어떤 용역회사체로... 하였든 기관은 별도로 해놓고, 적어도 용역을 하려면, 본사로서는 어떤

어떠한 전문 기술자들을 양성하는 동시에 그것을 유기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만 적어도 용역업무를 하지, 그냥 자본하나 안들이고 돈벌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니 앞으로 이렇게 준비하는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學會長 : 질문을 끝까지 다하고 하려고 했더니 너무 질문 사항이 많아 한번 끊어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로 합시다. 그리고 남은 두분이 취나레를 장식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임선생의 말씀을 듣기 전에 내가 좀 Comment를 해야겠어요. 임선생에게 「국제공로상」을 드렸지만 국제공로상에 참가하여 기술상을 드려야 할 분이에요. 이제 합이사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임선생 자신도 한국에서 한 일의 줄거리를 얘기했지만, 임선생이 수리조합연합회에 들어올 때부터 임선생의 국내근무기간 대부분을 나와같이 일했어요. 아주 좋은 Combination(콤비)였다고 할까, 임선생이나 나나 각각 일생을 통한 큰 인연일 것입니다. 10수년을 매일같이 얼굴을 맞대고 지냈으니 말입니다. 지극히 의가 좋았고, 일도 꽤 많이 했지요. 특히 새로운 분야, 개척 분야들을 새로운 idea를 서로 상의해서 결정하면 그 follow-up이기가 막히게 잘 되었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실천안을 만들어 제시해 오곤 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내가 큰소리 한번 낸 적 없고, 불만 표시라든가 얼굴 붉힌 적 한번도 없었어요. 한 이사가 얘기했지만, 같이 일하면서 내 일생을 통해서 보람있는 일의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농공계에 시험소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드는 준비를 임선생과 같이 했지만, 준비는 내가 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발전시키는 것은 임선생이 주무계장으로서 각 시험방법, 적용하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 냈지요. 임선생이 시험소의 아버지격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큰 일을 했다는 것은 아마 임선생도 외국에 가서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기술자로서 자기가 남긴 일중에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보람있는 일일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발전시킨 것이 간척관제지요. 내가 화란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미 임선생이 간척을 시작했고, 트런 간척부 시절 농진공 금평지구, 아산·남양 간척을 통하여 일본이 “하찌로가다” 간척사업을 통하여 간척기술혁명을 이룩한 것에 대등한 우리나라 간척기술의 일대 혁신을 가져오게 한것은 임선생과 내가 주도한 또 하나의 공통적 보람을 느끼는 일이란 생각됩니다.

그다음 IBRD사업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대단위 다목적 세계은행 지구를 하면서 (금강평택지구) Specification drawing이나 계약조항 등 기술운영을 일정을 영어로 하는 동시에 IBRD식으로 바꿨지요. 일본에서 수리기술을 “아이치요스이” 지구를 통해 일대 혁신을 한 것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금강 평택 지구사업을 통하여 일대 기술혁신을 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주도역할을 임선생이 나하고 같이 했으며, 후에 합이사가 임선생의 후임으로 참여해서 금자탑을 세운 것도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임선생의 자랑을 좀 하다보니 나도 끼어들게 되는데요. 또 한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해외 기술 용역문제인데, 이것도 사실은 윗분들도 계셨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인 것이 국내에서 내가 주도하고 감히 선진국 사람들 그 선진국 중에서도 아주 최고급 기술자들 하고 경쟁해서 이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힘들었는데, 임선생이 ADB의 용역을 한번 해볼만 하니까 해보소 하는 권고에 따라 용기를 내서 한것이 아까 Go-Cong pioneer Project에 대한 feasibility study를 하는 것이 처음으로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따 낸 것입니다.

사실 그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월남에 가서 피홀리고 해서 닳지, 한국이 어떻게 선진국을 이기고 땀느냐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고 아주 피나는 노력과 숨은힘 이것이 주효로 해서 됐던 것입니다. 이따금 얘기하는데 IBRD라든가, 아시아 개발은행에서 중진국 중에서 농업개발·토목 할 것없이 전문야를 통해서 Consulting firm base로 계약한 것은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첫 tape를 끊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자랑스러운 일이었지요. 그것이 벌써 9년이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 판분야에 아까 임사장이 뛰건 Engineering과 어딘가 Plant관제나 기계관계에 약간 나갔다고 하지만, 수자원 관계라든가, 농업개발관계라든가, 일반토목 관계, 아직도 능력있는 때가 있는지 모르지만,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듯 합니다. 우리는 벌써 9년 전에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새역사를 만들었다. 이것이 또 임선생과 내가 주도한 찬란한 공동작품이지요. 우리가 IBRD관계 사업을 함으로서 실력을 얻었고, 특히 국제임찰에 익숙해진 것이 큰 힘이 됐다고 생각해요. 임선생이 기술적으로 공헌한 바 크므로 내년 2월에 기술상을 드려도 충분할 만치 국내에 있을때도 굉장한 공로

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한 가지 우선 기술용역 문제를 얘기하면, 나 자신 지금 어느정도 자책도 느끼고, 좀더 잘했으면 하고 느낍니다. 우리가 9년전 1972년에 Go-Cong지우에서 출발한 이후에 지금 겨우 몇지구 하고 있는데, 후진 중진국으로 우리보다 같은해, 조금늦게 시작한 인도의 "와뿌교"가 그다음 자유중국의 "사이노테크" 등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큰 발전을 했습니다. 그네들은 우리보다 늦게 시작해서 우리보다 진출한 나라수도 많고, 일을 탄 지구수도 많고 굉장한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한 해놓고 현재와서의 결과를 보면 발전은 그네들보다 훨씬 떨어졌다 이거지요. 그런면에서 있어서 실무적으로 담당해온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나 하고 자책을 느끼고 이러한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느낍니다. 기술문제 어학문제 또는 일을 따는 면에서 있어서의 활동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기술 뒷받침 문제를 얘기할 때, 임선생이 한국기술도 상당히 발달해서 선진국 비슷하게 되었다고 좀 칭찬 비슷하게 해줬고 지금 우리들 중에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신랄하게 함이사가 그렇지 못한 것같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어느때 우리 기술이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요즘 비교적 낙관적인 방향에서 상당히 비관적인 방향으로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학문과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 직장에서도 외국학회지니 기술잡지 70~80권을 봐서 회람하여 열심히 보는데 논문 및 새로 연구한것 실험한것 풀어낸 것 등 엄청나요. 이거 학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가 연구소는 없어졌지 실무적으로 하는 것을 비교할 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단단한 분발이 없으면 큰일나겠다는 식의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어학에서도 약하고 그외에 활동면에서 대단히 약합니다. 이런면에서 학회 연구분과 위원장이 와계시지만 우리 사실 지금 농업토목 연구소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의안을 정부에 내고있어요. 그래서 기술발전과 학문발전을 위해서 연구소 설치가 절대 필요하고 조직문제와 기술발전을 긴요한 문제로 삼아 연구를 더하고 이것을 조직화 해가지고 기술의 발전 질적 향상을 빠르게 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상태를 계속하지 못하고 도리어 지금 만 중진국보다 발전속도가 늦을것은 물론 나중에는 그냥 위축되어 버려 가지고 발전이 막히는 이런 문제까지도 지금 우려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것도 아니고 대학교수에 아주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고 실무자들 배 머리좋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다면 뭔가 조직이나 기구면에서 결함이 있지않나 아까 함이사께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임선생하고 얘기하다시피 인도가 발전한 것도 거기 "와뿌교"라고 있어요. 아주 국가적으로 여러 기술기관을 합해 가지고 해외용역을 주로 하는 Water and Power분야지요. 이런 용역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유능한 사람이 아주 열심히 하는 이런것이 있는가 하면 자유중국은 "사이노테크"가 private base지만 각 정부기관 대학 전력회사 등이 일부 맨처음 조직할 때 기구를 해가지고 만든 상법상의 조직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국가 전체가 힘을 합하여 미는 운영을 하고 있고 화란의 "Nedeco"도 여러 용역회사 시험소 연구소 정부의 기술부서가 뭉쳐 그 "암부레라"역할을 하는 상법상 강력한 용역단체이며 오스트레일리아의 "De-docon"이라든가 캐나다에도 그런것이 있고 독일에 "DPU"라고 여러 용역업체가 힘을 합하여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가지는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것을 보드래도 우리나라도 무엇인가 강력한 기구와 좀더 여러힘을 합칠수 있는 무엇인가 있어야지 현재 상태만 가지고는 능력발휘를 못하고 할 일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이 문제가 함이사께서 질문하는 여러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나왔는데 이면에 있어서 임선생이 특히 더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앞으로 이것도 우리 학회에서 학회발전 즉 농공기술자 발전 한국발전의 정책적인 면에서 다루어야 할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박사! 분과위원장 입장에서라도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겠고 오늘 임선생께 좀 좋은 지혜를 얻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다 나온 얘기지만 지금 우리 학회가 주도해서 앞으로 나아가갈 문제가 아까 함이사께서도 얘기했지만, 임선생이 국내에 제실때 10년 전까지의 실력을 대개 반복하고 조금나은 정도만 가지고 국제적으로나 국외에서 하고 있으며 국내적으로 볼때 보다 더 우리사업을 종합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겠으며, 그리고 요즘 우리가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유지관리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함이사를 위원장으로 워킹그룹 (Working Group)를 만들어 Study한바 투자한 시설물이 6조원(79가액)에 해당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람도 없고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6조원

이라면 굉장한 전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Water management와 시설유지 관계를 할때는 국가적으로 이익이되나 손실이 되나가 나오는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유능한 기술자를 양성하고 연구하고 무엇인가 과감하게 방향전환을 해서 종전보다 급속적으로 연구발전 실행하지 않으면 안될 큰 과제요 지금 안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전반적면은 후진국이라 하더라도 어느면에서는 상당히 앞선 나라들이 있어요. 작년 모로코에서 필리핀의 수리청장, 태국 수리국장, 인도의 수리관계 책임자 등 여러나라 수리관계 지도층 인사들을 많이 만나 환담하는 가운데, G.N.P는 우리보다 낮고 기술수준이 낮은 점도 있는 듯 하지만 제도나 조직면에서는 우리보다 월등하게 앞서 있고 아까 임선생이 이야기 한대로 간부들은 정말 영어도 잘하고 학문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에 있고 국제적 맥너도 능숙한 분들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우리가 잘해야 대등하게 되지 우물쭈물 하다보면 그네들 뒷전에 서지 않으면 안될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임선생이 10년 만에 돌아와서 우리 회원들에게 회지에 쓴다고 좋은 얘기만 하지 말고 비판할 것은 비판도하고 지적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채찍질도 해주어 앞으로 우리 수리계와 우리 농업토목 분야가 발전하도록 기탄없이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先生 : 감사합니다. 학회장께서 또한번 과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한국에 있을때를 돌이켜 보면 아까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은 학회장이 쫓 제가 입사할 때부터 쫓 따라서 부장까지 올라가는 기간 중에, 학회장은 여러가지 새로운 idea를 내는데 새 idea를 내놓을 당시에는 여러사람들이 모르는 분야 새로운 분야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에 안맞는다 미국같은 데서는 좋지만 우리나라 현실에는 시기상조라는 등 반대도 많이 부딪치기도 했고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도 그렇게도 생각했지만 지금와서 밖에서 냉정히 보니까 선경지명이 여러가지 Pioneer적인 일은 많이하셨다고 존경합니다. New idea을 내서 선진적이며 새로운 일 개척을 많이하셨습니다. 아이디어를 내놓으시면 아까 follow-up도 잘 해드렸다고 했는데 사실 애먹었습니다. follow-up을 할러니 학회장이 어떤때는 성격도 괘괄하시고 자기 idea에 맞지 않을 때는 기탄없이 신랄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맞추도록 implementation하다 보니까 나는 나자

신대로 무척 애를 먹었습니다. 그점을 지금와서 실토하는 바이며 제 개인으로 봐서는 여러면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학교시절엔 하수도 같이 했지요. 하수 생활에서 부터 받은 idea, 학회장이 착상하고 싶은 방향이라든가 제가 필설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와는 관계를 많이 가졌습니다. 우리 학회장의 영도력 영향을 많이 받은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질문사항 중에 3가지를 집약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까 이부회장께서 Fina, list 관계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우리 김부회장께서 농진공의 function에 대한 평가 80년 이후에 우리 농정에 관한 방향 그리고 농공교육의 방향은 어떤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거기에 뒤따라서 교박사께서 시험사업 또는 그와 관련된 우리 토지기반 조성사업 거기에 부수되는 Support Service 관계 농촌조직 등을 질문하신 것 같고 합이사께서 솔직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토지개발 사업의 기본방향 거기에 따르는 다목적 개발사업의 협조체계 그리고 국제용역 방향... 우리 학회장님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주셨는데 다시 말씀드리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우리 앞으로의 방향이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이 대충적인 의견인 것 같고 또 학회에 우리 학교를 맡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우리 농공학도의 교육방향 교육방침 목표 이런것을 앞으로 어디다 중점을 두는 것이 국제사회 국제적인 견지에서 봤을 때에 도움이 되겠는가? 그다음에 세번째 우리의 국제용역 진출문제 이렇게 대별이 될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이부회장께서 질문하신 final list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 이것을 솔직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어서 우리가 아까 학회장께서 말씀하신 Go-Cong지구 이것이 첫 동기가 됐지요. 200여개나 되는 long-list중에서 우선 선진국 몇나라 뽑아내고 후진국 몇나라 또는 중진국 몇나라 또 지역안배 구라과 몇나라 동양 몇나라 등을 참작합니다. 그럼 Go-Cong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아까도 학회장께서 잠깐 말씀이 하셨지만 제가 농업진흥공사에 한 10여년동안 몸담고 있다 와서 기술면이라든가 이런것들을 볼때 우리나라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정도를 갖고 충분히 한번 용역사업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 자신대로의 판단을 해 가지고 학회장한테 내가 사적으로 연락을 드렸습니다. 우리정도의 기술을 가졌으면 내가 보기에는 충분히 ADB의 회원국

의 기술수준이 아직은 우리의 Consulting Service를 받아야 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Semi long에 들도록 내가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Semi long에서 Semi list, Semi final-list 그다음에 final-list순으로 계속 들도록 지원을 좀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technical Proposal을 만드는 단계에 있어서 사실 처음으로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때 유치원생이 한번 대학교에 막바로 시험보는 것과 같은 그때는 여러가지 작성요령을 학회장이 그때 ADB에 직접오셔서 치밀하고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행이도 Proposal이 잘 만들어져서 final selection단계에서 좀 신랄한 얘기가 많았으나 결과적으로 통과가 돼가지고 세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이것이 출발의 동기가 됐던 거지요.

그러나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후에 합이사께서 질문하신데 답변을 추후로 하겠습니다. 우선 김부회장께서 질문하신 ADC의 function 문제 평가 우리 국내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ADB가 보는 ADC가 ADB 차관에 의한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청으로서 function 상의 평가를 말씀드리면 솔직히 우리 동남아세아의 여러나라 executing Agency들이 있는데 농업진흥공사는 우리나라의 유일무이한 농공분야의 시행청으로서 국내사업 시행하는데 대한 개괄적인 면에 대해서는 우리 ADB평가단들이 가끔 나와서 그때그때 사업차관을 줄 때 마다 ADB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한번 Mission이 나오게 되면 금액의 다소를 막론하고 그 시행청의 능력을 보게 되는데 여태까지 예를봐서 ADC가 ADB 사업에 대한 사업수행에 있어서는 국내뿐 아니고 IBRD 사업 등을 통해서 확실한 튼튼한 기관으로 공통적인 평이 나있고 한가지 여기에 관련되어 우리 ADB사람들이 농업진흥공사에 대해서 최근에 와서 느끼고 있는 사실은 우리가 관심있는 것은 Project Manager 또는 간부 Management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인데 어떤때는 우리의 예상 이상으로 빈번히 인사가 갈리고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사업면에서 불매 피치못할 Gap을 면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감이 있는데 지금 참으로 판나라의 예를 들어 말하자면 아까도 대원칙을 잠깐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사무제통 법제통 경제제통 단분야는 제가 관심을 안두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에게 관계되는 Irrigation 또는 수자원 개발국내에 Executing Agency로 보면 우리가 뼈로 느낄 정도로 담당부서의 이동이 없습니다. 판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한 때로는 너무 빈번하

지 않은가 하는 정도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물론 필요에 따라 있어진 일이겠지만 일을 하다보면 외국에서는 상당히 연관성 있는 그 사람이 무슨 특히 형사적으로 무슨 책임을 질만한 일이 아닌 이상 연관성이라든가 이런것으로 봐서 그 능력 또는 그사람의 재질에 맞는 적체적소에 배치 이것이 한번 이루어지면 크게 불법으로 과실이 없는한 계속됩니다. 우리가 한번 외국을 본따야 할 일이 있다면 특히 학회 또는 우리 정책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이런점을 한번 선진국들 하고 비교해서 고려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방향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교육자도 아니고 학회를 맡아 하시는 분들께서 다 아는 일이지만 우리 입장에서 불매 장차 농공학도들이 나와서 현업에 종사할 때를 생각해서 한가지 교수님들 한테 노파심에서 부탁 말씀 드리는 것은 요새는 우리 한국도 그렇게 지켜오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리라 봅니다만 지금 판나라의 예를 들면 이수리사업을 하는데 이제는 Irrigation only 그러니까 Single Purpose Irrigation only 에서는 벗어나서 이제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Approach로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Supporting Agency Service 라든가 농촌기반 그러니까 농지기반 조성이 아니고 농촌 기반조성을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李副會長 : 우리 대학의 경향으로서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관계배수, 농업수리, 농지조성 강의의 기본은 토목공학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느냐 지금 이런 문제를 가지고 토목공학하고 농공학을 합해서 과목을 신설공학과로 바꾸어 그래야 되지 농공학과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방향으로 정부측에서도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은 소중한 방향이라고 생각돼요. 농촌계획, 농촌건설에 초점을 두고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林先生 : 고박사께서 질문하신 것도 아까 농지기반 조성이라든가 그 방향으로 대개 관련되는 얘기고 시험 연구사업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뱉 수 없는 그것이 있으므로 좀더 시행청으로서 든든해지고 제가 그동안 ADB 평가단으로서 여러나라를 다닐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험계통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학회장의 지도 밑에서 시험계장도 하고 나중에 시험과장도 하고 거기서 얻은 지식, 농업토목인으로서 콘크리트 시험이 또는 토질시험등이 논의 될때 나는 이에 대한 지식이 큰 무기가 되어서 나

신 처음에 집행을 할 때는 여러가지 고통도 많았지만 고통 덕분에 지금 국제사회에서 세 먹을 때는 상당히 도움이 됐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합이사가 지금 말씀하신데 동감입니다. 우선 기반조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토지개발 사업의 방향이 이제 관개배수만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다목적 그러니까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Approach로 나가야 한다고서는 촛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선진국 사람들을 못따라가고 우리 가까운 예로 우리 분야에서도 해외 용역 업무를 다 났고 기반조성 사업이 되었으니 다 잘 되겠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죠. 특히 농진공에 계시는 분들 요전에 인도네시아 바리 및 테투라다지구에 갔을때 농진 직원들한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서 당신네들 용역사업하려면 남의 일류회사 Feasibility Report 만드는것 이런것 좀 공부하라고! 당신네들 이것 무엇이냐, 내가 한번 직원들한테 얘기한 일이 있는데 아! 우리 영어도 다하고 자기간에는 잘한것 같이 생각을 하는듯 하나 국제적인 위치에서 볼때 아직도 어색한 점이 많았습니다. 보고서를 읽다보면 Yov get lost 읽다보면 잊어버리고 말아 무엇을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솔직한 얘기를 하더군요. 그러니까 농진에 대해서 앞으로 용역사업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어느정도 내부적으로 열심히 Improvement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과거 그 생각 가지고 되겠지 뭐! 무슨 소리냐! 개척해 놓았는데 무슨 소리냐! 내가 볼때는 지금도 상당히 열심히 해도 못따라갈 정도인데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해 가지고는 얼마 안가서 Black list에 들면 그때는 도저히 못올라 옵니다. 아! ADC 시원찮아! 잘안돼! 이런 입장에서 그다음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특히 학회계통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 점은 초창기에 농업진흥공사라는 대간판을 걸고 또 국력을 업고 ADB에서 우리가 도울수 있는데 까지 한번 도와보았고 이것이 계속될 수는 없습니다. 나도 계속 이렇게 도와줄 수만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젠 진짜 한국의 간판을 걸고 국제개발은행의 용역사업을 하자면 좀더 근본적으로 체계, 조직, 등 냉정한 입장에서 검토해야 할것입니다. 국제적인 경쟁에 계속 참여하고 싶을때는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건 뭐냐 예를들어 인도나 기타 중진국에서 하는 것은 이 현업기관에서 그나라에서 현업을 담당하고 있는 관청

이 용역을 한다 하는것이 거의 없습니다. 극히 몇 나라를 빼고서 물론 그 현업을 지금 나라전체가 국가적인 위치에서 그회사를 돌기전에는 국제경쟁에 나가기가 힘들는데 한가지 예를 들면 인도의 경우도 그렇고 화란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딱 정부가 관장하는 Core가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그 Core회사가 일을 따가지고 거기에 맞는 각 Specialist들은 대학교수, 경제는 누구, Engineer은 농업진흥공사의 누구와, Economy는 대학교수 누구와라는 식으로 여러기관의 여러사람의 힘을 모아서 강력한 힘으로 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국내 현업을 하는 관청 또는 단체에서 해외일을 하다보면 현업에 전력을 두어서 주력하기 때문에 부차적인 해외 사업은 소홀해질 것입니다. 지금 ADC의 예를들어 말하면 해외용역부라든가 지독하게 강력하게 만들기 전에는 현재의 상태로 경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농업진흥공사 자체가 거기다 전력을 주력하면 판사업에 지장이 있겠지요. 여기의 기관은 국내사업은 물론 국내사업뿐만 아니라 해외사업도 하긴 해야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내사업할 일이 많고 주력을 쏟고보면 부차적인 것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생각할 수 있는 전체분야에서 필요할 때는 이 기관 저기관에서 Mobilize할 수 있는 모체를 만들어 보는 것이 우리 농공분야에 농공학도 농공학회원으로서 이쪽 바깥에서 보아 가지고 앞으로 경쟁에 나서려면 둘중에 하나 강력한 Intensification 하든가 아주 Motibize할 수 있는 화란의 NEDECO, 중국의 시노텍 같은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만 못해서 그런것을 하겠어요? 아주 강력하게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Specialist들을 뽑아 가지고 대결, 댕다, 거 누구와라 영어도 서툰 사람이와서 일대일로 하다 망신 당하고 망신 한두번 당하기 시작하면 망하게 되니까 아까 team-leader 얘기가 나왔지만 team-leader 한번 잘못하면 큰일이고 Project Director하는 사람은 아주 정책적으로 다루는 사람들, 정책적면에서 상대방을 Knock out 시킬만한 기술과 모럴이 갖추어져 있어야지 높은 사람이 통역이나 데리고 다니고 천만에 안되는 것이죠. 용역사업은 일대일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학회 이런 모인 자리에서 내가 지나친 얘기 했을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학회 입장에서 학회 회원의 한사람으로서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드리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셔서 나도 농업토목의 물을

10여년 먹은 사람으로서 우리 될 수 있으면 우리농진이 잘 되기를 바라고 한걸을 더 나아가서 농공분야의 사람들이 이젠 그야말로 선진대열에 맞춰서 경쟁을 하려면 생각을 한번 더 고차적으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식으로 나가다가는 항상 뒤떨어지는 것이죠. 그런점을 생각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사이 특히 수리사업 작분야를 보면 그중 Operation 및 Maintenance 에 있어서는 신규설치 사업을 해버리면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고 유지관리는 조합에 맡겨 가지고 적당히 하고 있는 사실 그게 아닙니다. 막대한 투자를 해가지고 그것이 제대로 되어야합니다.

최근에 제가 필리핀 앙카트망켓트 지구의 P.C.R 이라고 해서 Project Complexion Mission을 가서 실지로 분석을 해보니까 역시 기술단체라 Physical Construction란 끝나가지고 목표수확액 받도 달성하지 못한 거예요. 걸으로는 다했다 뒤편다 통계는 나올지 몰라도 몇 ton 중수 그런데 사실은 안되는 거죠. 뭐가 못하느냐, 유지관리, 농업방면이 모자라니까 그렇단 말예요. 유지관리 기술자라 하면 2류 기술자 또는 2류이하의 기술자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죠. Operation Maintenance Specialist 들은 설치사업의 주 Member 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지 않으면 근본사업 효과를 기대하는데 있어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느낀것인데 세계적으로 우리농공분야의 국제 Seminar, ICID 회의등을 위시해서 여러관련 Seminar 가 많은데 우리나라 기술자는 대개 빠지는 회의가 많습니다 내가 보기에 외화사정이 팽박해서 그전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고 외화사정도 이제는 완화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기술정보 교환하는데 있어서 이 Seminar 및 국제회의 참석이라는 것 아주 무시 못하도록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특히 학회계통에서 이러한 것을 강조해 주시는것이 좋을것 같아요. 국제 Seminar가 있을때는 내돈을 들여서 저들이 초청하지 않으면 우리는 갈 필요가 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언제 초청을 다합니까 그러니까? 내돈을 들여서라도 국제회의와 Seminar 정도만은 꼭 참여하도록 해야죠. 어떤때 보면 우리나라 Participant 가 누구냐. No. Korea 이제 Korea Participant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술을 교환하는데 절대로 필요한 것이라 재삼 강조합니다.

學會長 : Item마다 아주 성의있게 솔직하게 좋은 의견 계속 말씀해 주셔서 고마워요. 두분 아직 여

태 얘기 안하고 있는데 이번엔 마이크를 표준콘크리트 입사장에게로 돌려줬어요.

林社長 : 우선 제스스로의 소개를 조금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농진에 바로 입사하여 있다가 1년 반만에 마침수자원 공사가 발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채 1기에 시험을 봐가지고 그 쪽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산업기지에서 쪽 있다가 산업기지가 대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고기는 큰물에서 놀아야 한다는 객기비슷한 만용을 좀 부려서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어찌다보니 지금 장사꾼이 됐습니다.

제가 표준 Concrete라는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습니다. 했수는 6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회장님께서 나와 주십사하는 말씀을 듣고서 사실 상당히 망설였지요. 제가 이렇게 비천한 사람이 나가도 될까 말까하고 망설이다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행스럽게도 참 ADB의 입선생님을 만나뵈고 또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선 말씀 쪽 듣고 보니까 입선생님이 하시는 것은. 입선생님 개인의 영광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가 이것은 좀 여담이지만 영어만 잘 하시는 줄로 알았더니 한국어 구사력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정말 Engineer가 이렇게 말씀 잘 하시는 분이 드물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이 발취가 되고, 정리가 된 뒤에 학회지에 게재가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여러 후배들에게도 상당한 어떤 Incentive를 주지 않을까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쪽 말씀하신 것중에서 Engineer가 어학실력이 부족하다는 말씀 또 외국에 나가니까 관리자 기술기관의 Chief는 Engineer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듣고도 저로서도 Engineer로서 사실 한국시장은 아무리 눈을 씻고 봐야 없읍니다. 몇분 계시지만 극히 두물지요. 입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선 외국어가 딸린다 또 관리장을 못한다 이것은 우리가 Micro하게 생각한다면 이 일들은 어떤 과학도로서의 결합, 자연과학도로서 무엇인가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것은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사장이 Engineer가 드물고 장관이 이렇게 귀하게 나온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이것을 탓하기 전에 이것은 Engineer 스스로 자연과학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책임의 소지는 무엇이나 지금 입선생님께서 국제적인 감각센스가 대단하신 분인데도 이러한 humor sense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생활 소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사

회의 양상 이런것을 해치고 나가는 추진력 이런것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후배들한테 자극을 주고싶다 하던 Engineer과 자연과학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덧붙여서 소위 사회과학, 인문과학 쪽에도 눈을 돌려서 그런것에 대한 시견을 많이 풀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역시 좋게 얘기하면 Engineer business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학회라는 범주에서 조금 의따로 나가서 outsider로서 보았을때 농공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건설시장을 헤집고 다니다보면 이구석 저모퉁이 고루고루 아주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사람들 대개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것을 제가 뼈저리게 느껴요. 참 우수합니다. 어디가서 있는 사람들이든 자기가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 사무실이 토목학회에 있습니다. 토목학회에 있으면서 여러가지 학회 회의들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제 사무실을 빌려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 어떤 학회에 대해 응집력이 없다는 것은 제가 틀림없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가 보기에는 농공학회는 그중에서도 유달리 수작이라고 생각되며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이 농공학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학회지를 꼭 봅니다만 학회지라는 것이 물론 자연과학을 다루는 조직에 얽힌 전문지이지만, 너무 딱딱한것 같아요. 학술적인 면 이전에, 요즘 다른 학회지가 많이 개선됐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젊은 사람들로 개편이 돼가지고 음악도 갖다 싣고, 미술, 콩트도 싣고, 아주 제법 편집들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자연과학이지만 인문과학, 사회과학 쪽을 포함했으면 합니다. 전문지를 보았을때 재미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편집도 개편해 보는 것이 어떨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嚴專任理事: 여러 선배님께서 좋은 말씀을 전부하셨기 때문에 별로 할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한두가지만여 쭈어 보겠습니다. 국제 금융기관으로서는 ADB, IBRD 두기관이 저희 국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기관이라 봅니다. 물론 성격도 비슷한 것으로 알립니다. 그런데 두기관이 같은점은 어떠한 점이고 또 특이하게 성격적인 다른점은 또 어디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옵고, 또 하나는 임선생님께서 지금 ADB에 계시는데 ADB에 계시는 현 위치에서 후배양성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시

지 두가지만 질문하고 싶습니다.

林先生: 엄전임이사가 좋은 질문 하셨는데 ADB와 IBRD 두기관은 근본적으로 다른점이 없습니다. 설치목적상으로 봤을때 단적으로 말씀드려 개발도상국가에 있는 모든 부분에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진국의 자금을 활용해서 후진국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대원칙 입니다. 단지 틀린다면 활동분야가 세계은행은 문자 그대로 세계무대를 중심으로한 개발은행이고 아시아 개발은행은 문자 그대로 아시아를 무대로 한 것입니다. 업무면에서 따져볼 때, 내가 ADB에 있다고 해서 아니고 차관업무 추진면에서 보면 우리 회원국 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Project를 Identification해가지고 loan에 이루어 질때까지 시기적으로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것을 한번 분석해본 일이 있는데 물론 평균적으로 다르지만 내가 관계하고 있는 우리 농공분야에서 Identification에 loan이 이루어지기까지 제일 빨랐던게, 내가 한중에 우리 Irrigation Division에서 내가 기록을 한번 깨뜨린 일이 있는데 15개월 걸로는데 Identification 부터 빠른것 중에서 15개월에서 20개월 이런경도로 되는데 IBRD의 평균을 보면 보통 24개월이 넘습니다.

후진양성 문제는 내가 항상 농공분야의 후진양성을 위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이 Consultant와 ADB 직원으로의 채용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Consultant로 또는 직원으로 우리 농공인이 장기가 됐건 단기가 됐건 채용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불행히도 역부족 탓인지 아직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Applicant 몇사람이 있었는데 곧 밀지않아서 이뤄지라고 생각이 되고 Acting list에 들어있는 사람도 몇이 있고 하여 머지 않은 시일내에 누군가가 하나 Star와 같이 탄생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Permanent Staff에 대하여 권한이 인사부에 있기 때문에 내 권한이 없고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라는 것은 Mission을 나갈때 정직원의 수가 모자라면 Consultant를 임시 고용해서 그 Particular Mission에 참여해 가지고 보고서가 끝날때까지 5주 내지 6주 쓰는데 이런 assignment가 대가 Mission Chief로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 학회회원들 중에 능력있고 희망하는 분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회 있을때마다 우리 학회회원들을 위하여 노력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李副會長 : 농공분야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를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국내에서 그러한 영향을 그래도 10년 20년 진공했다는 사람도 회의를 느낄 분 아니라 그 영향이 학생들에까지 미치고 있어서 농공학과에 다니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묻는 것이 농공학 연구해서 장차 활동할 수 있다고 비밀비재하게 들을 뿐 아니라 거기에 걸쳐 아까 김부회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반토목하고 자주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일반토목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런 질문이 비슷하게 들려옵니다. 그런것을 생각할 적에 우리 국내에 있는 우물안 개구리 적인 우리들은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이 보신 안목하에서 보실적에 앞으로 농공학에 대한 전망이 어느정도 밝은지 어두운 것인지 그런점을 생각하신 나름대로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林先生 : 농업토목과 일반토목의 차이점, 이것은 학교다닐때 부터 학교나와서 또는 여태까지 쭉 계속하여 생각했던 점인데, 아전인수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ADB에 가서 쭉 기술자들 하고 맞상대를 하다보면 80%의 Engineer들이 일본을 쫓는 나라 사람들로서 일반토목을 한 사람들입니다. Civil Engineer라고 그 사람들은 막연히 Civil Engineer 물론 아주 Curriculum 자체부터가 농업토목과가 없는 나라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것의 근본적인 근원이 결국 Civil Engineer들은 그 Executing 한 입장에서 Engineering 계통만 해버리고 그 다음 Agriculture 관계는 난 도르다고 손 씻어버리고 Agricultural 계통으로 넘기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나 할 것 같으면 그와 같은 농업 토목의 근본적인 Back Ground가 없기 때문에 역시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 Approach 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기술 설계를 하려고 하더라도 잘 안되는 때가 있어요. 정말 담용수량 전용수량이 다를 것이고 농업상식이 없어가지고 Water Requirement를 따진다는 것은 사실상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긋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하고 얘기할 때는 Engineer들이 우리같이 농업토목 한 사람들하고 맞상대하여 농업에 대한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때는 상당히 막힌다고 또 끌리고, 아 우리는 농업은 모른다고 합니다. 농업을 몰라 가지고서 어떻게 설계가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현재 물론 농공학회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교육방향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지만,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입장에

서 농업토목적인 Irrigation Integrated Agricultural Development를 하는 분야라면, 훨씬 우리가 순 트 목한 사람들보다 아는 분야가 많고, 적어도 아시아 전내에서는 절대로 자신있게 농업토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學會長 : 나도 하나 첨가해서 얘기할 것이 있고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표준 콘크리트 임사장이 나이도 젊었고 좋은 얘기 해주었고 학회 활동에 대해서도 좋은 제언을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목표는 회원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관심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무엇인가 학회지 발행이라든가 기타 무언가 하자하는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나 있느냐 할때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 있어서 오늘 좋은 말씀도 듣고, 이제 우리 사무국장이나 전임이사 그리고 회장단 다같이 이런점을 느껴서 종전보다 활발한 여러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아까 대개 이야기된 문제로 우리 농업토목 기술자들이 순전히 기술적인 문제만 집착할 것이 아니고 좀더 Management나 경제라든가 행정 이런분야도 좀더 지식을 넓히고 전문을 넓혀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면에 있어서 우리 임사장 같은 분이 나이가 젊은데도 불구하고 벌써 상당한 고생을 하면서 한개의 기업체를 경영하고 있고 그 내용자체가 새로운 것 한국에서는 아직 하지못한 선진국에서 발전시킨 것을 재빨리 먼저 도입해서 보급하고 기술발전에 이바지 하는 동시에 이것을 사업에 Link시키고 있어 기대가 큼니다. 그리고 이부회장께서 말씀하신 젊은 학도들이 농업토목을 배워가지고 장차 썩 먹올때가 있겠느냐 국가에 봉사할 수 있느냐 뭔가 사업이나 기구가 축소되는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같기 때문에 이것은 젊은 사람들한테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는 동시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국내적으로 볼때도 상당히 일이 많이 있어요. 관개시설도 할것이 많고 밭 100만ha에 대해선 전적으로 지금 새로 관개시설을 해야되고, 간척이 또 지금 4, 5십만ha 해야될 것이 있어 국내에 있어서 적어도 몇 십년간 개발할 일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현재 은퇴할 때 까지는 충분히 할일이 있으리라고 보고 있고 그러나 기술발전을 이룩하여 Computerlizing하고 Remote Control하는 식으로 기계와 문명의 이기를 많이 쓸 것 같으면 현재 100명 쓰던 것을 50명내지 30명으로 축소될 것으로 생각해요. 풍사갑독 구미식

으로 검사만 하는 식으로 할 때에는 절반 내지 1/3로 기술자 수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문제도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내수요로 볼 때는 뭐 그렇게 일마든지 필요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으나 눈을 한번 세계무대로 돌려 볼때는 우리할 일이 많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회지에 자주 씁니다만 현재 세계적으로 수리시설할 것이 10억ha가 있는데 그 중에서 2억 5천萬ha밖에 앉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5천萬ha할 것이 있는데 대부분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했고 대부분 증진국이나 후진국 특히 Asia Zone에 많기 때문에 우리 농업토목 기술자들이 질적으로 우수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낸다면 국제시장은 무한대하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서 실력을 붙여 나갈것 같으면 얼마든지 일등국민의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국제인도 될 수 있고, 우리 입선생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걱정 말고 공부 잘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학교 교수님들이 해주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나라 수리시설물이 작년 가격으로 6조원으로 평가되었는데 금년에는 7조원이나 8조원어치 될 거예요. 이 시설유지라는 것이 Water Management 관제를 포함하여 많은 우리 기술자가 종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전통적인 농업토목 전공한 분들이 유지관리 분야에 많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입선생이 국제회의및 Seminar에 많이 나가야 한다는 것 잘 지적 해주셨습니다.

高博士 : 임은전 선생이 계신 ADB내에서 농공분야가 찾아하는 위치와 他 Department와의 상호 유대관계를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先生 : 아까 고박사가 말씀하신 우리 농공분야가 차지하는 ADB내에서의 위치 Department라든가 또는 우리 그 위치 그 평가의 지수가 우리는 역시 은행이다 보니까 차관액수 가지고 각 Sector 별 사업의 중요도를 분석하게 되는데요 우선 조직상으로 사업부가 3가지 있습니다. ADB내에 그중 하나가 ARD라고 해서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Department(농촌개발국) 여기에 내가 속해있는데요. 그 다음에 Industrial Department라고 순전히 Power관계 또는 항만 발전 또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Instructor Department 도로 기타의 Instructor 공공시설로 되어 있는데 우리 ADB가 관여하고 있는 아색아 개발도상국내에서의 A.R.D, 농업개발부의 위치가 지금 현재로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게 되는데 불행

히도 차관액면상으로 전체 차관액수의 20% 내지 25%경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으나 Project수는 많습니다.

농업발전의 여지가 아직도 무궁무진하게 많다 보니까 A.R.D의 위치가 크고 A.R.D중에 핵심요소가 역시 Irrigation Division이죠 농지기반조성이 없으면 물론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만 내가 속해있는 곳이 Irrigation Division인데 한 3년전 까지만 해도 Irrigation Division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Division가지고 전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수리사업을 전담하다보니 지금 말씀드린대로 우리 개발여지 Potential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보니까 절대로 일반 Civil Engineering보다 그 판매 Demanding은 더 많다고 봐요. Irrigation Development 상으로 봤을때 농공학도들이 나갈 수 있는 길 그러니까 그점은 자신있게 학도들에게 거짓없이 역설하고 싶습니다.

李副會長 :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學會長 : 작년엔 I.C.I.D 이사회에 참석하여 부회장에 출마했다 떨어졌지만 “드림관개” 실무위의 일원으로 참가자격을 얻었고 또 “관개배수건설 기술분과위”의 일원이 되도록 동분과위 위원장의 약속을 받은바 있으며 세계 여러나라 수리관개 지도총과 알게된 점등 I.C.I.D 회의에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명씩 꼭 참석해야 겠다고 실감이 들었습니다.

林先生 : 학회장님이 말씀하시니 저도 생각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I.C.I.D나 국제 Seminar 이러한 동등이 있으면 우리 분야에서도 누군가가 꼭 참석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제는 경말외화사정도 좋아졌고 돈없어서 못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기술이 올라가 있는데 가서 참석한다는 것은 국제적인 면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위치상으로 봐서도 Korean? No. there's no Korean. 이렇게 하다보면 어딘가 창피한 점이 있는것 같고 I.C.I.D같은 것은 불과위원회 별로 아주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학회장께서 갔다 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 농공학회가 지금 제 1차적으로 할 것은 I.C.I.D가 우리 전문분야에서는 국제적으로 제일 권위있는 기관이니 적극 참여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I.C.I.D에서 나오는 발간물을 우리 학회하고 연관을 지어 고박사께서 정책심의 하시는데 그러한 것을 도입해서 가지고 연관을 지어서 발전도 시키고 발표도 하시도록 하시면 좋을가 합니다.

